불자 세상보기

불교 '복지 사각지대'에 더 큰 자비를



권경임
복지영성연구소장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민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정계층에 부(富)가 집중되어 있고, 국민의 70-80% 정도가 미래를 예상할 수 없는 불안정한 삶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2014년 2월 26일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 자살한 사건에 대해 조계종 노동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애도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의 자화상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빈곤문제와 복지안전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나타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 모녀 자살사건이 일어난 1주일 사이에 모두 6가구 12명이 숨졌는데, 이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마다 복지 확충을 강조하는데 왜 이런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각종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인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 및 부양 의무자'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근래에 자살한 가족들은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복지대상자를 심층조사하기 보다는 수적인 조사를 하는데 그쳤는데, 복지혜택의 문턱을 낮추는 등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자살 수(2012년 기준)는 1만 4160명으로 집계되어, 인구 10만 명당 33.3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그 중에 노인의 자살율은 10만 명당 81.6명으로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자살이유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에서 비롯된 복지 사각지대와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 때문이라는 것은 사회전체에 비극이 아닐 수 없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빈곤율이 6위로, 국민 가운데 1년에 1천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전 국민의 4분의 1이나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드러나지는 않지만 세 모녀 자살사건과 비슷한 사례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 소득원인 가족이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수입이 없는 경우 최초 한 달간 생계지원을 해 주고, 사정이 있으면 한 달을 더 연장해 주는 '긴급생계지원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것 또한 단기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전면 조사에 들어가서, 세 모녀 사건 이후 한 달 내에 조사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2-3명이 지역주민 3만 명 정도를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기초생활제도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처럼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때문에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이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수를 늘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단기 처방으로 이러한 사태가 반복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초수급자 기준을 완화하고, 빈곤을 선별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보다 보편적인 복지로 전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정부가 큰 틀에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불교계를 포함한 종교기반의 사회복지기관들은 세밀하게 대인적인 서비스에 집중해서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복지대상자들을 보살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불교계는 한국사회 양극화현상과 빈곤문제 등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갖고, 통합종단차원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거나 혹은 종단별로 복지재단이나 '아름다운 동행'과 같은 공익재단에서 긴급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정부와 사회복지계와 연계하여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발언대

미주전법 50년 시점 논란

미주전법 시작을 선착순으로 결정하나



이종권
조계종 국제포교사
미주불교신문 편집국장

미주한국불교계는 '미주전법 50주년'에 대한 분분한 의견들로 설왕설래가 진행 중이다.

김형근 미주현대불교 사장은 1964년 서경보 스님의 도미를 미주한국불교의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2014년인 올해가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호응해 미동부해외특별교구에서는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며 큰 규모의 지원을 본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미국 서부의 불교계에서는 개인적으로 유학을 목적으로 도미해 사찰을 설립한 것도 아니고 미주한국불교계에 족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서경보 스님을 미주불교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견해다. 당당한 한국사찰이 미국땅에 개원된 시점을 미주불교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행사는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 특히 불교행사는 기념을 통해서 포교효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경보스님 기원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서경보스님의 도미를 기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더군다나 행사준비위측은 조계종으로부터 행사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는데 주인공인 서경보 스님은 1988년 조계종을 탈종해 일붕선교종을 창종한 분이다.

50주년의 시작을 서경보스님으로 잡았다면 기념행사는 필히 서경보스님에 관한 조명과 찬탄으로 채워질 것이다. 50주년이 그렇게 되었다면 60주년도 70주년도 그리고 100주년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헌데 서경보 스님은 미주한국불교의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서 영원히 추앙받을 업적이 있는가? 현존하는 대다수의 미주한국불교 승가와 불교인들은 그것을 인정하는가?

서경보 스님은 유학생 신분으로 도미해 템플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간 학승으로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주에서 활동하는 여러 한국스님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서경보 스님을 미주 전법 1호로 받아들이기에는 어색하다는 것이 중론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렴된 의견에 따르면 미주에서 활동하는 여러 스님들이 미주한국불교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희망하는 분은 숭산 스님이다.

숭산 스님은 서경보 스님보다 몇 년 늦게 도미하셨지만 학생신분이 아닌 스님으로서 초청받아 도미해 미국생활을 오롯이 포교에 바치셨다. 이 같은 행적은 미주불교의 후예들에게 향구적인 가르침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숭산 스님은 LA 최초의 한국사찰인 달마사, 뉴욕 최초의 한국사찰인 원각사와 조계사 그리고 시카고 최초의 한국사찰인 불타사를 창건해 오늘날 미주한국불교의 틀을 완성했다.

영어권 한국불교의 측면에서 역시 숭산 스님의 업적은 독보적이다. 한국불교의 세계화의 원력보살로서 'Kwan Um School of Zen'이라는 선불교 종파를 창건해 수많은 미국인 불자들을 양성했고 미전역 그리고 전세계 수십 곳의 선원이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며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

미주한국불교의 출발점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은 무엇인가? 미국에 도착한 선착순인가 아니면 미주한국불교사에서의 업적인가? 선착순을 기준으로 삼는다 해도 서경보 스님은 최초가 아니다. 그 이전에도 한국스님이 미국에 실존했었다는 기록과 증언이 있는데 주최측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서경보 스님 기원설을 받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열반한 서경보 스님도 이런 상황을 원하고 계신 것인지도 의문이다.

현재 미주한국불교의 90퍼센트는 조계종이다. 미주불심의 저변에선 "도대체 조계종에서 왜 일붕종 스님을 기념하는 행사에 돈을 쓰나?" 라는 지적이 신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서경보 스님을 생전부터 흠모했던 제자들과 신도들이 스승을 추모하고 기리는 뜻으로 그들의 정성을 모아 치루는 작은 행사가 아니고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큰 행사이다. 미주불교의 역사와 미래를 가늠하는 이런 큰 행사를 기획하며 그에 합당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음은 아쉬운 점이며 부작용도 염려되는 대목이다.

社說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 마땅하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197차 회의의 주요 사안인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 · 법규위원 참여를 담은 종헌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까지 나서서 관련 종헌 종법의 통과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안은 지난해 6월 제194차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도 불거졌던 문제다. 당시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은 종헌 개정을 통해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을 관철하려 했지만, 비구 종회의원 스님들은 이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비구,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의 설전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비구니 스님들이 회기 기간을 보이콧하면서 종회가 파행 운영됐다.

현재 비구니 스님들이 초 · 재심 호계위원회에 참여하는 법 개정안은 확정된 상황이다. 확정된 안에 따르면 '초 · 재심 호계위원에 비구니 스님 2명이 의무적으로 참여' 하도록 했으며, 비구 스님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구니 호계위원은 비구 징계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 고 단서조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오는 3월 18일에 열리는 제197차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종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구니 스님들은 호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된다.

현재 비구니 스님들은 종단의 이부중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종단 개혁이 이뤄진지 20년이 지났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내 위치와 권한은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여성이 국가의 수장으로 활약하는 시대이지만 불교계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위원 진입과 참종권 확대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관련 종헌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창조론 학회 주장 학생에게 가르칠텐가

2012년 여름, 한국 사회는 때 아닌 '시조새 교과서 삭제' 논란에 휩싸였다.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이하 교진추)의 청원에 따라 과학교과서 출판사 7곳 가운데 6곳은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으로서 시조새를 삭제하거나 그 의미를 바꿨다. 연일 언론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고,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마저 "최근 한국의 진화론 반대자들이 주류 과학계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조롱 섞인 보도를 했다. 창조론의 약진 뒤에는 30년 간 음지에서 활동해 온 창조과학회가 있었다.

이 같은 악몽이 다시 재현됐다. 이번에는 교학사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사용 지도서가 문제가 됐다. 교과서 130, 131쪽의 성적 지향에 대한 반대 논거로 '창조과학회 등의 학회지에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연구들이 발표됐다', '또한 창조과학회 등의 학회지에서 성적 지향이 유전되거나 선천적이지 않는다는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3월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특정종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단체 주장을 검토없이 교사용 지도서에 싣는 것은 종교와 정교분리를 내세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반적, 합리적 내용을 담아야 할 교과서에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단체의 주장이 여과없이 반영된 것은 문제가 있는 처사다. 게다가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 내용과도 상치된다. 반대 성명을 낸 종자연은 "창조과학회가 생물학 교과서에 창조론을 싣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창조과학자들이 준동하여 상식과 신념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소란을 우리도 '강 건너 불구경' 할 때가 아니다. 한 창조과학자가 박근혜 정부의 로드맵을 수립하는 인수위원회의 교육과학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내 아이들에게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비(非)과학적인 사실을 가르칠 것인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